

慕賢 모티프

- 「讚耆婆郎歌」와 「蜀相」을 中心으로 -

金 甲 起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I. 문제의 제기
- II. 作詩 배경
- III. 작품 분석
 1. 「찬기파랑가」의 보편적 담론
 2. 「축상」의 서정적 담론
- IV. 「찬기파랑가」·「축상」의 대비
- V. 문제의 정리

<논문 요약>

선지자인 시인의 사명은 조국이 평화로울 때는 ‘민족어의 완성’과 ‘민족 문화의 고양’을, 난세에 처하였을 때는 ‘혼란으로부터의 국민제도’ 및 ‘정의로운 민족혼의 일깨움’이라 전제하고, 그런 차원에서 신라 경덕왕 때의 난세와, 당대 안·사란을 ‘구제할 능력과 人望을 지닌 시대적 영웅을 추모하고 그리워함’을 주제로 한 충담사의 「찬기파랑가」와 두보의 「축상」의 창작 배경·구성법·주제·사상적 배경 등의 유사점을 통해 노래 문학의 보편적 심상을 바로 읽고자 했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1) 창작 연대의 동시대성이다.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의 8세기 중반은 대륙과 반도가 같은 정치·사회적 난세를 맞았고, 따라서 두 작품은 동시대에 창작되었다 할 수 있으며(760년대), 2) 창작 배경은 統三 후의 안일과 사치가 부른 신라 경덕왕 대의 정치·사회적 혼란은 대륙의 개원·천보 연간의 태평·사치가 안·사란을 초래한 경우와 동일하며, 3) 작품의 구성 역시 「찬기파랑가」가 문·답·합창이란 3부의 거대한 코라스라면, 「축상」은 결련의 비장미를 장치한 고도의 문답식 유사성을 수사법으로 썼으며, 4) 주제 역시 난세를 구제할 능력과 인망을 지닌 시대적 영웅을 추모하고 그리워함이란 모현 의식으로 충담사는 기파를, 두보는 천하구제[漢室의 재건] 및 선·후주[유비·유선]에 대한 충성과 民 治에 전념했던 제갈량을 추모하고, 그들의 재림, 그러므로 요순의 순속한 이상세계의 건설을 바라는 願望, 혹은 그리움의 노래로 동일하며, 5) 사상적 배경 역시 동일 작가의 「안민가」야 이를 바 없이 유가의 현실정치론으로 직서되었거니와, 「찬기파랑가」 역시 비록 불교의 미륵신앙에 바탕했으나, 미래의 이상 사회 지향이란 점에서 유가의 지치주의 정치논리와 다를 바 없는[不二法門] 일치점 등으로 요약되는 보편 심상의 노래 문학이라 결론했다.

주제어 : 두보, 「축상」, 충담사, 「찬기파랑가」, 모현의식, 지치주의.

I. 문제의 제기

부다페스트의 소녀여, 네가 한 행동은
 네 혼자 한 것 같지가 않다.
 한강에서의 소녀의 죽음도
 동포의 가슴에도 짙은 빛깔의 아픔으로 젖어든다.
 기억의 憤한 강물은 오늘도 내일도
 동포의 눈시울에 흐를 것인가.
 흐를 것인가, 영웅들은 쓰러지고 두 달의 투쟁 끝에
 너를 겨누 같은 총부리 앞에
 네 아저씨와 네 오빠가 무릎을 꿇 지금
 인류의 양심에서 흐를 것인가.

<김춘수 ·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중에서>

태평을 구가하는 개인 지식인으로서의 시인의 사명이 ‘민족어의 완성’ 및 ‘민족문화의 고양’이라면, 위기에 처한 조국의 현실 앞에서는 ‘혼란으로부터의 국민 계도,’ 나아가 ‘정의로운 민족혼’을 일깨움이 또 다른 신 지식인으로서의 크나큰 임무임에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김춘수의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은 구공산 쏘비에트 치하에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 고결하게 순국한 열 세 살 난 헝가리 소녀의 뜨거운 피를 다뉴브강으로부터 우리네 한강으로 이어온 불멸의 시정신으로 근대시사에 각인되어 있다.

담론의 화소를 7세기 중·후반으로 거스르면, 문물의 성찬을 구가하던 대륙의 盛唐이 安·史의 亂에 이어 위글과 토번족의 내침으로 國步가 기울어 갈 때 우국충정의 杜甫가, 반도에선 통일삼국의 백여 년 번영과 안일이 점차 쇠미의 나락으로 침몰해 가던 신라 景德王代의 忠談師가 있어 민족혼의 계도라는 위대한 사명을 다하고자 했음은 두루 아

는 바다.

본고는 어석에 얽매어, 이른바 언어의 그물망에[言筌]¹⁾에 빠져 바로 읽히지 못하는 「찬기파랑가」의 보편적 해독을 위해 시대심상을 대변한 작시 동기를 통해 접근하며, 두시 「족상」과 작시 배경·구조·주제 및 사상적 특징을 대비하므로 시가문학의 보편심상을 읽고자 한다.

II. 作詩 背景

1. 「찬기파랑가」의 경우

문학 작품이 '시대 심상의 반영'이며, 작가와 작품의 관계가 '그 나무에 그 열매'임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시대·작가·작품'의 관계는 별개일 수 없으며, 그것이 당시대의 보편심상이기에 또 작품 이해[독자]와 무관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다.

범박한 논범으로 김춘수의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이 일제로부터 어렵게 찾은 국토와 주권을 공산주의로부터 수호하고, '자유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해방 공간' 회복이란 염원을 위해 민족 계도의 차원에서 노래된 선지자의 외침이었듯이, 충담사와 두보 역시 미륵신앙에 투철한 榮服僧으로, 혹은 남다른 우국충정으로 위기에 처한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며 '국민 계도' 및 '정의로운 민족혼'을 일깨우기 위한 방편, 또는 그럴 능력이 있는 '위대한 지도자'를 향가와 한시의 시식에 담아 그리움[慕賢]으로 승화한 작품들임에 분명하다. 물론 '慕賢'이란 주제어의 개념적 외연은 부적절한 대로 단순히 '賢者를 그리워하기'보다는 '난세를 구제할 능력과, 인망을 지닌 시대적 영웅'이란 포괄적 의미로 사용하고

1) 嚴羽, “시의 원리는… 이치의 길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말의 통발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上乘이 되니, 唐나라 사람의 시가 왕왕 이에 가까웠다(詩之理… 不涉理路 不落言筌 爲最上乘 唐人之詩 往往近之矣).” <滄浪詩話> 참조

자 한다²⁾.

「찬기파랑가」의 효율적인 작시 배경을 살피기 위해 몇 가지 가락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이하 『유사』) 소재 향가 14수 중 5수³⁾가 경덕왕 재위 24년 내에 지어졌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거나,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요할 까닭은 못 된다. 그러나 몇 가지 특이한 사실마저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경덕왕 대에 지어진 위의 5 작품 중 희명의 「도천수관음가」야 千手千眼의 具足한 관음보살을 향한 기복신앙으로 실행된 독립 편목이지만, 월명과 충담 두 국선의 작품들은 예사롭지 않은, 적어도 一然의 의도적 편찬에 의한 포치임을 읽게 된다. 일찍이 최철 교수가 이점에 착안하여 정론을 진술한 바⁴⁾ 있어 부연은 생략할 일이지만, 경덕왕 대의 어떤 정치·사회사적 현상들이 왕으로 하여금 緣僧 월명과 營服僧 충담을 기다려 「도솔가」⁵⁾와 「안민가」⁶⁾를 지어야 했으며, 더욱 상찬의 대상이었던 ‘기파’란 인물의 ‘존상의 필요’는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안민가」보다 이른 시기에 지어진 노래가 왜 기술물도 없

- 2) 임기중, 「향가와 한국인의 정서」에서 향가에 나타난 신라인의 그리움의 정서를 6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득오가 죽지랑을, 충담이 기파랑을 기린 것과 같은 것은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그리움이라 했다. 『한국문학의 이삭』, 아세아문화사, 1998. 25~29.
- 3) 도표의 5수 외에 사학자 이기백은 그의 『신라정치사회사연구』(일조각, 1990. pp. 224~226)에서 신중의 「월가」의 창작 연대도 경덕왕 22년 이후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물론 『유사』의 기술물 외의 신 학론은 일정 검증을 거쳐야겠지만, 사실로 확정된다면 6 수인 셈이다.
- 4) 최철, 「찬기파랑가」, 『향가고려가요연구』, 이우출판사, 1985. pp115~123 참조
- 5) 『유사』의 관련 기술물 중 “今俗謂此爲散花歌 誤矣, 宜云兜率歌.”라 했듯이 ‘산화’는 부처 맞이 불교의식인 ‘散花功德’의 준말로 노래 이름이 될 수 없고, 더욱이 작품은 유가의 현실적 治道 이념을 도솔천의 미륵 신능을 통해 국난 극복을 목적인 祈福佛敎 儀式의 呪歌이므로 「도솔가」로 명명함이 옳다.
- 6) 참고에 이반고자 「안민가」 원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君은 어비여 臣은 득스살 어시여 민은 얼흔 아히고 흐살디 민이 득솔 알고다 구물스다히 살손 物生 이흘 머기 다스라 예싸홀 브리곡 어되갈더 흘디 나라악 디니디 알고다 아으 君다히 신다히 민다이 흐닐돈 나라악 太平흐니잇다”. <遺事·2. 景德王忠談師 表訓大德>

이 나중 지어진 「안민가」의 뒤에 첨기되었는가? 더구나 무관한 듯한 해공왕 출생담은 또 「안민가」 및 「찬기파랑가」와 정녕 무관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관련 어휘 풀이 못지 않게 설왕설래 되어왔음이 사실이다.

작 품 명	형 식	작자	창작 연대	창작 동기	비 고
도 술 가	4구체	월명사	왕19년(760)	二日竝現	日怪滅
제망매가	10구체		이른 시기	亡妹營齋	두솔천 歸去
안 민 가	"	총답사	왕24년(765)	五嶽三山神出現	국란 豫防
찬기파랑가	"		이른 시기	慕賢意識	國亂豫占. 王沒
도천수관음가	"	희명	?	5歲兒 失明	得明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경덕왕대의 정치·사회사는 관심사의 1순위로 할 것이다. 물론 김승찬은 “왕도의 실현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비등하던 경덕왕대를 ‘병든 사회’라 규정”하였으나, 한편 “신라 극성기에 달하던 때로 제반 제도·관직을 중국식으로 개편하는 등…9州·5小京·117郡·203縣을 완비하였으며, 당나라의 제반 문화를 수입하여 신라문화의 황금기를 이루었고, 불교 중흥에도 노력하여 황룡사 종·굴불사를 비롯하여 영흥·원연·불국사를 세우고, 대외관계로는 당나라와 친교가 있었다.”는 등 다소 시각의 차이가 있으나, 국가 안위와 관련해 지어진 「도술가」와 「안민가」의 창작 동인이 된 ‘二日竝現’과 ‘五嶽三山の 諸神出現’이란 담론의 키-워드는 결국 사회 심상의 반영이란 실화적 상징 화소로 읽을 일이다. 이른바 『시경』이래 제왕의 상징인 해가 둘이 나타났

7) 이홍식편, 『국사대사전』·一, 백년사, 1972. p.66 및 불교학자이자, 『신라불교 문화 연구』의 저자인 김운환은 위 저서에서 “불후의 향가문학이 있었던 같이 석굴암 불상과 같은 稀世의 예술이 나타났고 만불산과 같은 神巧와 萬波息笛 같은 奇緣이 신라 불교의 흥륭과 예술문화의 복된 징조를 예시해 준 것이다. 이것은 신라불교가 한창 성하고 향가문학에 있어서도 거의 절정에 달한 신라 통일 경덕왕 전후에서 신라 예술문화가 더욱 고조되어 나타난 것을 보아도…”라고 예술문화의 절정기라 하였다.

다 함은 親唐外交 정책 및 급진적인 唐制 개편에 이어 재래의 지명까지 漢式으로 바꾸는가 하면, 3살짜리 왕자 乾運(혜공왕)의 때 이른 세자 책봉 등이 자칫 필요 이상의 왕권 강화 수단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는 데다, 동왕 16년 일체 내·외관 월급제 폐지, 동 17년 관리 중 휴가 60일 이상 자 일괄 해직 등 강경 개혁 드라이브는 金良相·金思仁·萬宗 등의 반왕당파, 곧 새로운 왕권 도전 세력을 양산케 하였음의 상징이요, 나아가 여러 신들의 출현이란 사태의 확대, 내지 악화의 상징으로 읽을 수 있다. 실제로 혜공왕 즉위로부터 비롯된 술한 모반 사건⁸⁾ 끝에 결국은 백관의 명칭 복구, 끝내 재위 15년 만에 이찬 志貞의 모반에 의해 살해되고, 드디어 奈勿王의 10대 손인 김양상이 37대 宣德王으로 즉위한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는 바와 무관하지 않다.

국가의 안위가 이러할 때 柱石之臣이 절실하고, 선지자는 ‘지극한 덕과 정성으로 지성을 감응케 하거나,⁹⁾ ‘천지귀신을 감동케 하여’¹⁰⁾ 기우는 국보를 지켜왔으니, 경덕왕과 더불어 도타운 미륵신심의 道伴이었던 월명과 충담의 ‘지극한 덕과 정성’은 끝내 경덕왕의 요청에 의해 미륵의 神能을 불러들일[感應] 주력가인 두 향가 작품을 짓게 되었고, 실제로 경덕왕 당대에는 무탈히 國步가 유지되었으니, 이른바 신라인의 信心이 별충된 셈이다.

한편, 찬상의 대상인 기파에 대한 다양한 유추 역시 본 시가의 성격을 그 작시 배경이 무색하리만큼 각인각론이다¹¹⁾. 분명한 것은 기파는 郎이

8) 혜공왕 4년 일길찬 大恭·아찬 大廉 모반 복주.

" 6년 대아찬 金融 모반 복주.

" 11년 이찬 金隱居·이찬 廉相·시중 正門 모반 사형.

" 15년 이찬 志貞 모반하여 혜공왕 죽임. 金良相 宣德王으로 즉위.

9) 『유사』·五. 「月明師 兜率歌」 “... 知明之至德與至誠 能昭假于至聖也 如此...” 참조

10) 全上, “新羅人尙鄉歌者 尙矣. 蓋詩頌之類歟. 故往往能感動鬼神者 非一” 참조

11) 지현영, 생산신·창조신. 『善陵에 대하여』, 『동방학지』 12. 연세대 국학연구원. 1971 ; 금기창, 우주신, 곧 하느님. 『충담의 향가 二篇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7, 국어국문학회. 1982 ; 김선기, 당대의 시중 金耆, 「‘씨이빠(기파가)

고, 본가는 그 郎을 讚한 노래며, 충담사는 國仙이라는 사실이다. 통일삼한의 주체로 선망의 的이었던 화랑¹²⁾, - 지금은 그 기세가 위미해졌기에 더욱 그리운, 그들의 우국충정이 절실한 때, 향차 기파는 전 신라인은 물론, 자연 물상[달]까지 존상해 마지않는 고매한 인품과, 서리마저 범접하지 못할 지조는 물론, 올곧은 화랑의 장[花判]이었기에 그에 대한 그리움은 왕과 충담의 것만이 아닌 바로 시대 심상, 그것이었던 것이다.

워낙 기파라는 인명의 유래는 불교의 여러 경전에 나타나거니와, 특히 인도의 불전 「왕사성 비극」에 등장하는 기파는 온갖 악행을 저지른 아우 아자타샤투 *Ajatsattu*를 참회의 길로 인도하는 선인이자, 임금에게는 충신이요, 만인의 선량한 벗으로 묘사되어 있다. 한편 『능엄경』의 여러 疏¹³⁾에는 長壽天神으로 기술되었으니 양주동의 ‘길보·기보’설의 근거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醫王 Jiva[能活·固活]의 명호이기도 하니¹⁴⁾ 화랑장으로, 혹은 병든 시대 심상을 치유할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추앙을 한 몸에 받는 인품이기에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려야[理安民] 할 王道 실현’을 위해서도 정녕 필요한 호국의 영웅이건만 ‘알천 시내¹⁵⁾ 가 조약돌밭에 지나셨던 고매한 이상의 냇만 있을 뿐’ 가고 오지 않는다.

노래’ 신라노래-셋’, 『현대문학』 147호, 1967 ; 김종우, 표훈대덕, 『향가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94 ; 양주동·홍기문·김상억·김준영 등 대부분 학자들은 논저를 통해 화랑으로 인식함.

12) 화랑은 불교의 미륵사상에 의해 지상의 이상국가를 건설하고자 진흥왕이 창설한 청년단체로 평소에는 산천을 주유하며 시를 짓고 고매한 뜻을 갈무리기에 風月主라 했으며, 용맹정진으로 무장된 그들에 의해 삼국통일의 성업도 완수됐다. 기파는 물론 죽지와 같은 모현의 인물과, 월명 충담 같은 우수한 향가 작가의 배출이 다 이에 말미암는다 할 것이다.

13) 耆婆 此云長壽天神 携子謁之 求長壽也. <능엄경> 권2

耆婆 此言命 西國風俗 皆事長命天神. <능엄경> 권2

王言 我生三歲 慈母携我 謁耆婆天. <능엄경> 권2

14) 양주동, 『古歌研究』 四, 찬기파랑가, p319, 박문서관, 1946.

15) 이임수 교수는 『한국지명총람』 7. 경북편 4. 및 현지 탐문을 통해 현 경주시 양북면 廿川里 소재 ‘수무내’라 고 밝힌 바 있다. 「찬기파랑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동국논집11.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1992>

이처럼 기파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의 노래가 「안민가」와 '혜공왕 출생담'의 틈새에 편목된 일연선사의 편찬 의도에 대해서는 최철 교수의 상기 논문, 곧 "혜공왕 출생담을 「찬기파랑가」의 배경 설화로 규정"하였고, 이는 학계의 일반론으로 수용된 듯하다. 이른바 祈福 내지 祈子說話라 하겠다.

2) 「축상」의 경우

‘蜀 나라 宰相’이라면 성당의 詩聖 두보가 “제갈공명 큰 이름 온 천하에 드리웠다(諸葛大名垂宇宙)”<杜諺·三. 詠懷古跡 五首·5>고 찬양한 축한의 초대 재상 제갈량(181~234)의 상징이자, 역시 두보가 그의 사당을 참배하며(上元 2년, 760. 49세) 한 번 가고 오지 않는 賢相이자, 名將인 제갈량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칠언율시, 위낙은 「蜀相廟」의 통용 詩題로 이해된다.

제갈 성씨에 亮이란 본명보다는 孔明이란 자로 잘 알려진 그는 호족 출신으로 어려서 부친과 사별하고 荊州의 숙부 玄에게서 자랐다 하며, 후한 말기 전란을 피해 출사하지 않고 남양에서 躬耕할 때부터, 인망이 높아 와룡선생으로 불렸다 한다. 이때 魏의 曹操에게 쫓겨 형주에 와 있던 劉備 玄德의 三顧草廬의 예를 받고 초빙되어 天下三分之計를 진언하고 水魚之交를 맺었다. 이후 蜀의 孫權과 연합하여 남하하는 조조의 대군을 적벽대전에서 크게 물리치므로 蜀漢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우다가, 221년(章武 元年) 후한의 멸망을 계기로 유비가 帝位에 오르자, 재상이 되어 어린 후주 劉禪을 보필하며, 民治를 꾀하는 일방, 雲南으로 진출하여 국기를 다지며 중원을 평정코자 하였으나, 위낙 강대한 魏와의 국력의 차를 감당하지 못하고, 위나라 司馬懿와의 五丈原 전투에서 병사했다. 출병에 앞서 2세 유선에게 올린 「전·후출사표」는 우국충정의 사표이자, 천고의 명문으로 읽는 이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고야 마는, 그러므로 더욱 그 ‘이름이 우주에 드리우는 명성’을 입었으니. 이

는 물론 유비의 蜀漢이 漢의 정통 왕실이라는 자신의 正名主義 때문이
 요, 이점이 바로 후대의 선지식인 두보가 국가의 안위를 접할 때마다 공
 명을 에타게 그리워한¹⁶⁾ 이유이다.

「촉상」의 작시 배경이야말로 조국 대당제국의 존폐라는 보다 절실한
 현실적 위기였던 安·史의 亂(755~763) 중에 두보가 성도[금관성] 외곽
 에 있는 사당을 찾아가 “봄 풀은 해마다 다시 돋어나건만, 왕손은 한 번
 가고 돌아올 줄 모른다(春草年年綠 王孫歸不歸)”는 인생무상의 정조를
 노정한 작품이다.

안·사의 난, 비록 醉香亭의 아쉬운 霓裳曲이 猪龍을 불러 들였다¹⁷⁾
 하나, 中原의 그 찬란한 문물의 성지를 가시덤불로 만들어 버리다 못해,
 피비린내로 물 드러¹⁸⁾ 성당의 천보 성세를 中唐의 길로 내닫게 한 중국
 사의 일대 비극이었다.

현실 정치에 싫증난 현종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재상 이림보는
 명문귀족들의 세를 꺾고자 이민족, 혹은 서민 출신들을 변방 절도사로

16) 『杜諺·三』 「詠懷古跡 五首·5」의 “제갈공명 큰 이름 천하에 드리웠는데 주
 석지신의 유상은 엄숙하고 드높구나. 삼분의 차지는 꺾어 비겨 모자라서, 만
 고에 혼자 우모처럼 하늘을 날아, 백중의 사이로 이윤과 여상을 봐야했지. 지
 휘대로 했던들 소화와 조삼이 무색했으리. 옮기는 나라의 운수 돌리기 못내
 어려워, 군무의 수고됨에 몸 바칠 다짐했었네.(諸葛大名垂宇宙 宗臣遺像肅清
 高. 三分割據紆籌策 萬古雲霄一羽毛. 伯仲之間見伊呂 指揮若定失蕭曹. 運移漢
 祚終難復 志決身殲軍務勞)”는 좋은 예다.

17) 高麗 李仁老의 시에 “무궁화 꽃 나직이 어우러져 핀 벽산 봉우리 아래, 아침
 술에 막 취해 발그레한 귀비의 얼굴. 예상곡에 맞춘 춤 마쳤으나 남은 흥이
 모자란데, 하루 아침 천둥 비가(난리) 돼지용(안록산)을 보냈구나(槿花低映碧山
 峰 卯酒初酣白玉容. 舞罷霓裳歡未足 一朝雷雨送猪龍)<過漁陽>

18) 杜詩 「哀王孫」의 “...허리에 찬 옥패는 푸른 산호인데, 가엾어라, 왕손이 길에
 서 울다니, 물어도 이름대기를 꺼리며, 다만 끈고로우니 종이나 시켜달란다.
 하마 백 여일을 가시덤불에 숨어살아, 몸에는 성한 살결이라곤 없대오 ... 어
 제 밤 피비린내 나는 동풍이 불어 닥쳐, 동으로부터 오랑캐 무리 장안에 득실
 덴대오(腰下寶玦青珊瑚 可憐王孫泣路隅. 問之不肯道姓名 但道困苦乞爲奴. 已
 經百日竄荆棘 身上無有完肌膚...昨夜東風吹血腥 東來橐駝滿舊都)<杜諺·八·
 哀王孫> 참조

중용하는 등 국사를 전횡하더니 현종과 양귀비의 총애를 받던 역시 北狄 안록산을 평로·하동·범양 세 지역 절도사의 증책을 맡기는 파격적 대우를 했고, 안록산 역시 득의 만만했다. 그러던 중 권신 이림보가 죽고 양국충이 재상이 되자, 전도가 불안해진 안록산은 양국충 토벌을 명분으로 변방 부족에서 가려 뽑은 친위대 8천 여기를 앞세우고, 15만 대군으로 범양을 출발(755, 11, 9), 낙양을 향해 진군했다. 전쟁의 경험도 없고, 사치와 향락으로 헤이해진 관군은 대항 한번 제대로 못한 채, 불과 1달 여만에 낙양은 함락되고 만다. 이에 방자해진 안록산은 大燕 武皇帝를 자처하며 장안 공략에 나서자, 현종은 연추문을 빠져 축으로 피난하고, 顏眞卿 등 몇몇 의군의 활동이 눈부셨음은 우리의 임란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지덕 2년 정월 비록 중서시랑 嚴莊이 안경서와 환관 李猪兒를 회유하여 안록산을 제거하긴(759) 했지만, 반군은 아직 수장 史思明의 수중에 있었고, 안경서마저 죽인 그는 大燕皇帝를 잠칭하며 장안 공략을 획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반군 내에서 일어난 자중지란으로 아들 史朝義가 아버지를 죽이고(761) 스스로 목숨을 끊으므로(763) 7년 3개월에 걸친 안·사란은 끝났지만, 그간의 참상은 두보의 수많은 詠史詩가 증명하는 바와 같다. 특히 그의 「三吏·三別」¹⁹⁾은 이 난으로 신음하는 대당제국의 실록이다. 여기서 잠깐 낙원과 낙원 상실 모티프의 객관적 공감을 위해 大唐 개원 전성기의 시대상을 보자.

憶夕開元全盛日	돌이켜 보면 개원 전성 시대에는
小邑猶藏萬家室	자그만 마을도 일만 가구가 번성했었다
稻米流脂粟米白	쌀알은 자르르 기름기 흐르고 좁쌀도 하얀 것이
公私倉廩俱豐實	관이나 사가의 창고마다 철철 넘쳐났었지.
.....
齊紈魯縞車班班	거리마다 바리바리 제와 노의 비단 실은 수레요

19) 김갑기, 『韓國漢詩文學史論』, 「茶山詩에 나타난 杜詩攷-「三吏」를 중심으로」, 1998 ; 「茶山詩에 나타난 杜詩攷-「三別」를 중심으로」, 이화문화출판사

男耕女桑不相失 남정네 밭갈이 아낙네 길쌈 때를 넘기지 않았죠
 宮中聖人奏雲門 궁중의 임금님도 태고적 운문악을 연주하시고
 天下朋友皆膠漆 천하 벗님네들 우정이야 아교처럼 끈끈했지
 百餘年間無災變 한 백년 전란이라곤 없었으니
 叔孫禮樂蕭何律. 숙손의 예악과 소하의 율법으로 다스려졌지요.

<杜諺·三. 憶夕 1단>

신선 세계란 이상경일 뿐 있지도 않지만, 구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바로 인생의 지상 낙원인 것이다. 그것도 개원 초기의 사회심상이요, 아직 天寶 연간의 장엄·화려함이 아니다. 이 같은 낙원이 안·사의 난으로 여지없이 망가지고, 대당 천하가 인간 나락으로 추락하였으니, 「三別」 중 「垂老別」의

四隣未寧靜 천하가 온통 난리판이라 안녕치 못하니
 垂老不得安 늙은인들 어찌 편안하리오
 子孫陣亡盡 아들 손자 모두 전쟁터에 끌려가 죽었으니
 焉用身獨完 어찌 이 한 몸 성하길 바라리까
 投杖出門去 지팡일랑 팽개치고 출정 길에 오르니
 同行爲辛酸 함께 가는 모두들 측은해 하누만

.....

.....

老妻臥路啼 늙은 할멈 길바닥에 엎어져 통곡하는데
 歲暮衣裳單 한 겨울 선달에 홉옷이랴오
 熟知是死別 뉘 알기나 하랴, 이 이별 사별인 줄을
 且復傷其寒 도리어 아내의 추위를 안쓰러워 한다오
 此行必不歸 이 출정 분명 돌아 못 올 길임을 알고
 還聞勸加餐 지어미는 정성껏 더운 진지 권하구요
 土門壁甚堅 지어미는 토성의 문이 매우 견고해서
 杏園度亦難 반군의 침입이 결코 쉽지는 않으리라며
 勢異鄴城下 진세가 지난 업성의 패전 때와는 달라
 縱死時猶寬 비록 죽는대도 시간의 여유는 있다나.

.....

萬國盡征戍 온 나라가 모두 전쟁판이라
 烽火被岡巒 봉화 불이 천지의 산하를 뒤덮었고
 積屍草木腥 쌓인 시체로 초목은 온통 피비린내뿐인데
 流血川原丹 핏물로 내와 언덕 붉게 물들었으니
 何鄉爲樂土 어디인들 낙원이 있다고
 安敢尙盤桓 어찌 감히 주저하리요
 棄絕蓬室去 정든 땅 초가삼간 떠나려 하니
 塌然摧肺肝. 의연히 애간장 끊어질 듯 하여라.

<杜諺·四>

는 그 한 예에 불과하다.²⁰⁾ 젓과 꿀이 흐르던 장안, "거리마다 비단 실은 수레와, 기름기 좌르르 흐르는 오희 실은 수레가 넘쳐나던 지상낙원"이 아비귀환의 죽살이 터[死生地]로 변했다. 아들 손자 모조리 전쟁터에 끌려가 죽고, 홀로 남은 늙은이가 가엾은 할멈을 둔 채 지팡이 대신 창과 칼을 잡고 출정한다. 강산을 적신 피와 문드러진 시체로 물든 피비린내, 여기가 곧 지옥인데 "어찌 늙었다고 혼자 살아 남아 있겠느냐[垂老別]"는 분만, 설령 안진경 같은 의군이 있고, 郭子義·李泌 같은 승장과 策士가 있다 하나, 왜 아니 제갈량의 충성과 지략과 전술이 아쉽지 않겠는가!

이런 전란의 와중에 마침 성도에 도착한(건원 2년, 759) 두보는 「春望」 「哀王孫」 「哀江頭」 등 많은 우시연민의 시를 지었고, 익년 봄 본고의 「축상」을 지었으니, 그 작시 동기는 이를 바 없이 국란 수습, 곧 제갈량 같은 名將賢臣의 힘을 빌어 唐虞至治의 再臨, 이른바 "임금을 요와 순의

20) 두보가 안·사란의 전적지 동관성을 지나며 목도한 참상의 일단은 "...이승 한 밤 전쟁터를 지나자니, 싸늘한 달이 하얀 해골을 비추는데, 예전 동관 길목을 지키던 백만의 군사, 어찌 그리도 즐지에 패산해서, 진 땅의 반이나 되는 수많은 백성을, 참혹하게 죽여 컷것이 되게 했단 말인가(--夜深經戰場 寒月照白骨. 潼關百萬師 往者散何卒. 遂令半秦民 殘害爲異物.--)"와 같이 처절했다. <杜諺·一,北征>

웠자리로 치켜 받들고, 다시금 풍속을 순속케 하려는[致君堯舜上 再使風俗淳]"<杜諺 19·奉贈韋左丞丈 22韻> 두보 특유의 충정 때문이니, 「찬기파랑가」와 전혀 다르지 않다.

Ⅲ. 작품 분석

1. 「찬기파랑가」의 보편적 담론

향가는 신라인의 그리움이란 원형심상을 잘 담아낸 노래 문학이다. 그 중 효소왕대 득오의 작으로 전하는 「慕竹旨郎歌」²¹⁾ 역시 이상적 인간형 [화랑 죽지]에 대한 그리움의 정조를 노래한 순수 서정시가이기에 「찬기파랑가」와 무관하지 않다.

본고 「찬기파랑가」에 대한 필자의 과묵한 최근 정보는 이임수의 논고²²⁾다. 그렇다. 시의 언어는 언제나 낯설다. 그러나 복잡 미묘한 현대인의 다양한 정서 표출도 아니고, 특히 言盡而意猶餘라는 표의문자에 의한 한시도 아니며, 더욱 ‘그리워하고 찬양하는 시어’의 모호성이란 그것이 어학적이건, 문학적이건 보편적 담론의 문법에 맞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교수의 “지나친 추단은 오히려 작품의 이해에 제약이 된다”는 머리말, 이른바 언어의 그물망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충언은 호의적이다.

상대 기술물, 특히 향가와 같이 향찰로 기술된 고시가 작품은 그 정확

21) 『유사·2』, 문무왕대를 전후해 김유신과 더불어 삼국통일에 크게 이바지했던 죽지랑 역시 득오를 비롯한 일반 화랑들에게 미륵의 현신처럼 추앙된 인물로 그 노래말은 “간 봄 그리매 모든것사 우리 시름 아롭 나토샤온 즈시 샅쭈미 니저 눈 돌칠 스이에 맞보옵디 지소리 郎여 그럴스스미 녀올길 다붓 굴허헤 잘밤 이시리”와 같고, 모티프는 慕賢의 정조이다.

22) 관련 설화는 홍기삼의 『향가설화문학』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이고, pp.165-219. 1997, 민음사. 작품은 이임수의 「찬기파랑가」다. pp. 205~223. 임기중편 『새로 읽는 향가문학』 1998. 아세아문화사.

한 시어 풀이가 바른 작품 이해의 관건이므로, 정확한 논증과 다양한 용례를 요한다. 그러나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듣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만큼 보편적 담론이었고²³⁾, 또 그러했을 노래 문학 그 이상이 아니다. 다소 장황한 대로 원문²⁴⁾에 대한 양주동·이임수의 풀이를 대비하며, 이설과 함께 그 보편적 담론을 재구해 보자.

열치매	울오이치매
나토얀 드리	나토얀 드라리
흰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하	흰구름 조추 떠가는 어느희
새픈 나리여희	물이 가른 나리여희
耆郎이 즈시 이슈라	기랑이 즈시이시 숲야
일로 나리스 지벽희	수모나릿 지벽희
郎이 디니다샤온	낭야 디니다샤온
막스미 굿홀 좇누아져	막스미 굿홀 좇누아져
아요 잘스가지 노파	아야, 갓스가지 노포
서리 뜯누을 花判여.	서리(눈이) 모드나을 화반여.
<양주동>	<이임수>

이상의 어석 중 ① 咽鳴爾處米, ② 浮去隱安支下, ③ 沙是八陵隱汀理也中, ④ 兒史是史藪邪, ⑤ 逸烏川理叱, 등의 어휘 외에도 대동소이한 이견들이 있으나, 노랫말 큰 뜻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특히 ①~⑤는 전혀 작시 배경, 혹은 노랫말 본 뜻과 괴리된, 이른바 보편 문법의 궤를 넘는 듯하다. 찬찬히 노랫말 행간을 읽자면

- ㉠ 뭉게구름 두둥실 떠 흐르는 맑은 밤하늘,
- ㉡ 휘영청 밝은 달,

23) 『遺事·五』 「月明師 兜率歌」, “…朝野莫不聞知…” 참조

24) 咽鳴爾處米 露曉邪隱月羅理 白雲音逐于浮去隱安支下 沙是八陵隱汀理也中 耆郎矣兒 史是史藪邪 逸烏川理叱磧惡希 郎也指以支如賜烏隱 心未際叱勝逐內良齊 阿耶 栢史 叱枝次高支好 雪是毛冬乃乎花判也. <遺事·二·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㉔ 새파란 물가 조약돌을 배경으로,

피소너는 그 자갈밭에 원대한 이상, —그것이 조국의 안위던, 분열된 국론의 재결합이던, —을 지니고 숙고에 빠지곤 하던 찬양의 주체를 세워 놓고, 자기 대신 달로 하여금 “나도 그리워 그 분 가 계신 서방천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게 하고²⁵⁾, 이어 달과 함께 잣나무를 빌어 “서리조차 아랑곳하지 않던 고매한 인품”이었음을 함창²⁶⁾하는 가장 고급한 수사법을 사용했다. 필자의 독법에 동의한다면,

① ‘咽鳴爾處米’는 ‘늦겨곰 벼라매’(김완진), ‘울오이치매’로 읽기보다는 ‘열치매’로 읽어야 2~3구의 ‘나타난 달’과 ‘흰 구름 좇아---’와 조응구조가 맞다함은 상식의 문제다. ‘訓主音從’의 통계적 논리로 ‘올다 지친 달’로 만들어 버리면 讚歌가 아닌 弔歌일 뿐이며, 더욱 양주동의 어석은 완벽하다.

② ‘浮去隱安支下’ 역시 ‘떠간 언자래’(김완진), ‘떠가는 어늬히’보다는 ‘떠가는 안디하’가 시적 문법에 맞는 이유는 기왕에 ‘므스딕 꺾술 좇느라져’(김완진), ‘므스딕 꺾홀 좇누아져’(이임수)라고 달의 답사로 보았다면 응당 問辭여야 하기 때문이다.

③ ‘沙是八陵隱汀理也中’도 ‘물이 가른 물서리여히’(김완진), ‘물이 가른 느리여히’(이임수)로 읽는 논법이 의아하기만 하다. ‘물이(沙是)·물서리(汀理)’는 ‘새팍튼 나리’의 어석상 완벽한 논고와 용례를 부정하고 ‘모래가 가른 물 사이’라는 시적 문법이 가능하겠는지 의아스럽다. ‘모래가

25) 김운환은 「鄉歌에 나타난 佛敎思想」, 「미륵하생설사상」에서 “화랑은 미륵의 이상국가를 찾는 무리이며, 그 승화된 정신은 이미 兜率天의 彌勒處에 가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달을 이끌어 그를 높게 칭찬하고 있다는 것, 또 저 신성시되는 창공의 달의 경지로는 기파랑의 정신을 따를 수 없는 그 숭고한 곳, 이것은 아무래도 기파랑을 미륵과 같이 보았기 때문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결론하고 있다.

26) 양주동 박사는 「사뇌가」의 우수성을 논한 글에서 “忠談師의 「讚耆婆郎歌」의 저 劈空撰出의 高邁한 ‘託意’와 希臘 唱劇의 三部樂을 연상케 하는 그 탁월한 構成”범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국학연구논고>

갈라놓은 시내'보다는 '새폭튼 나리'라야 '고매한 인품'에 비유될 '잣 가지'와도 시적 이미지가 무리 없이 조응되고, 시적 정서는 더욱 엄숙·장엄해 진다 할 것이다.

④ '兕史是史藪邪' 역시 '즈시 올시 수프리야'(김완진), '즈시이시 숲야'(이임수)라는 독법은 기량의 '고매한 녀'과 '달밤의 음침한 숲'이 어떻게 시적 상관성, 말하자면 시적 유추가 가능할지 실로 암담하다. '즈시이슈라(죽[모양]이 있어라)'라는 영탄이 있어야 그 '지니셨던 마음의 끝'을 쫓고, '아으'라는 영탄과 함께 '달이 가야할 방향'이 설 것이다.

⑤ '逸鳥川理叱'의 경우는 펍 시사적이다. 양주동은 '일로', 곧 '이제로부터'라는 부사로, 김완진은 구체적 제시를 약한 채 고유명사 지명 '逸鳥'로, 이임수는 현지 답사 등 노고 끝에 '수모내'로 확정했다.(주 16참조) 그러나 문면상 '逸鳥'가 지명이라면 4구 첫 어절에 쓰여 '逸鳥 새파란 ~'이 되어야 논법이 맞다. 옛 노래 바로 읽기라는 명제상 더 많은 상고가 요구되는 중요 과제라 하겠다. 편의상 양주동·이임수의 현대어 풀이를 예시하여 참고에 이받는다.

열치매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좇아 떠가는 것 아니냐
 새파란 나리[내]에
 耆郎의 죽[모양]이 있어라
 이로 나리 조약[小石]에
 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좇과져
 아으, 잣[栢] 가지가 높아
 서리를 모를 花반이여.

<양주동·國學研究論攷>

올이지침에
 나타난 달이
 흰구름 좇아 떠가는 어디쯤
 모래 가른 나루터에
 기량의 모습같은 숲이여
 수모넷가 조약들에
 낭이 지니시던
 마음 한끝이라도 따르렵니다
 아아, 잣나무 가지 높아
 서리 모르실 화랑이시여!

<이임수·앞의 논문>

2. 「축상」의 서정적 담론

두보의 시에 명시 아님이 없지만, 특히 「축상」은 그 수용미학적 가치는 물론, 언해 역시 명번역으로 알려진 秀作임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 이 병주는 “두시에 제갈량을 노래한 시가 많음은 제갈량과 같은 재상이자, 장군이 나타나서 조국의 안정을 회복시켜 달라는 소원의 안표”²⁷⁾라 했으니, 이미 언급한 작시 배경 그대로요, 「찬기파랑가」의 창작 동기와 무관하지 않다.

「축상」의 전문은,

丞相祠堂何處尋 승상의 사당을 어디 가 찾으리오
 錦官城外栢森森 금관성 밖 잣나무 뻗은 숲 속에 있지요
 映墻碧草自春色 버텨에 비친 푸른 풀은 절로 봄빛이 되었고
 隔葉黃鸝空好音 잎을 사이한 피꼬리는 속절없이 좋은 소리로다
 三顧頻煩天下計 세 번 돌아봄을 번거롭게 한 것은 천하를 위한 계책이었고
 兩朝開濟老臣心 두 왕조를 열고 구제하림은 늙은 신하의 충성심이었죠
 出師未捷身先死 군사를 내어 이기지 못하고 몸이 먼저 죽으니
 長使英雄淚滿襟。 길이 영웅들로 하여금 눈물이 옷깃을 젖게 합니다.

<杜諺·六. 蜀相>

와 같다. 청나라 仇兆鰲의 말대로 “전 4구는 무상한 자연의 봄이 베푼 祠堂의 전경이며, 후 4구는 승상의 신하로서의 충성은 물론, 정통 漢王室의 재건이라는 正名主義를 읽게 하는 이른바 前景後情이란 율시 작법 그대로다.

기런 첫 어절부터 ‘丞相’이라고 直書한 것은 제갈량을 그만큼 正統名臣, 곧 漢室의 정통왕조로 蜀漢 제갈량에 대한 존상²⁸⁾이랬다.

27) 李丙疇, 『詩聖杜甫』 「第七話, 50代 전반의 杜詩」 p.133 참조

28) 仇兆鰲, 『杜詩詳注』·九, p.109 “上四句 祠堂之景, 下四句 丞相之事” 및 ‘直書丞相 尊正統名臣也’ 참조

기련의 1구는 自問이고, 2구는 自答이니, 작시 원리상 「찬기파랑가」의 문답처럼 완벽할 수야 없는 偶同이라지만, 흥미로운 유사점이다. 이는 물론, 경련에 이어질 제갈량의 무한한 공업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어찌면 점점 잊혀 가는 세인을 향한 경각일지도 모른다. 함련의 寫景은 경이면서 정인 점이 두시의 特長이다. 자연의 봄이 왔다고 무심한 봄풀과 피고리는 속절없이[自·空] 꽃다히 피고, 교태로운 노랫소리를 뿜내나, 인간의, 아니 조국의 봄은 오지 않았다 함이니.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는 1,200여 년 시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우국충정과 사명은 일반인 듯하다. 한편 구조오의 말대로 ‘사당의 황량한 모습을 묘사 한 것’이자, ‘자연의 물사를 보고 느껴움일 뿐, 사람의 마음은 말 밖에 있다’²⁹⁾ 함은 ‘시 읽기’의 正道를 훈수한 정평이다. 曹樹銘 역시 “이 시는 뻑뻑한 잣나무에서 시상을 일으켜 풀은 꽃다히 봄빛을 띠고, 새는 좋은 소리로 화답하나, 저들이 내 마음의 슬픔을 알까?³⁰⁾”라 했다. 이른바 자연의 절서는 어김없이 돌아오건만, 무상한 인간사는 잊가기만 한다. 어찌 천하를 바로 잡아 억조창생을 살려낼 將相은 한 번 가고 아니 오는 것이며, 先主를 도와 나라를 열고, 2세를 보필해 漢의 정통왕조를 세우려는 늙은 신하의 苦衷을 알아주지 않는단 말인가.³¹⁾ 조수명도 ‘天下計’는 ‘한왕실의 정통을 잇고자 한 원대한 뜻을 이루고자 함이었지, 사사로운 안일을 구함이 아니었다’하고, ‘老臣心’은 ‘곧장 光武의 중흥과, 高祖의 흥업을 회복하려 함’이라 했다. 고로 이 兩句의 沈摯悲壯³²⁾은 결련의 통곡을 유도하는 가늠대이기에 충분하다. 저 기련의 ‘何處在’는 정작 결련의 ‘身先死·淚滿襟’을 위한 복선이었으니, 식자인의 옷깃을 무

29) 仇兆鰲, 『杜詩詳注』·九, p.109, “草自春色.鳥空好音 此寫祠廟荒涼, 而感物思人之意 即在言外” 참조.<全上>

30) 曹樹銘, 『杜臆增校』「0二七0, 蜀相」, pp. 175~176, “此詩起興於森栢, 而草芳春色, 鳥報好音, 鳥知予心之悲?” 참조

31) 仇兆鰲, “天下計 見匡時雄略, 老臣心 見報國苦衷” 참조. <全上>

32) 仇兆鰲, 全上

던히도 적셔온 천고의 名對偶다. 그러니 비단 제갈량의 눈물만도, 두보의 눈물만도 아닌, 천고의 영웅들의 눈물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어찌 영웅들에게 제주만 주고, 수는 주지 않는단 말인가'라는 두보의 뉘두리는 또 말 밖에 있다. 이른바 말은 끝났으나, 무궁한 뜻은 애연히 귀에 쟁쟁 남아 있다.³³⁾함이 정작 이런 시구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IV. 「찬기파랑가」·「축상」의 대비

「찬기파랑가」가 향찰로 표기된 신라 10구체 향가이고, 「축상」이 한자로 기술된 唐代의 칠언율시라는 양 민족 간 문화의 생래적 차이점을 제외하면, ① 창작 연대의 유사성, ② 국란이란 정치·사회사적 동질성, ③ 문답식 구성이란 수사적 공통점, ④ 국란 타개를 염원한 賢者에 대한 추모의 정이란 주제의 동질성 등 많은 공통점을 지녔다 할 것이다. 각 항을 좀더 부연하자면, 8세기 중반의 신라는 난만한 불교문화, 풍요로운 물질 문명 속에 꽃피운 향가문학의 절정기였고, 대륙 역시 성당 시문학이 李·杜를 비롯한 2~3 천여 기라성들이 쟁명했으며, 일본 또한 와카[和歌]라는 새로운 노래를 문학의 향유하던 동양삼국은 이른바 지상 낙원이었다. 그러나 워낙 오랜 文治는 무지한 영웅을 기르는 법이어서 대륙과 반도는 잘 먹여 기른 猪龍들의 作亂의 터가 되었으니, 큰 역사의 줄기 속에서 760~765년 언저리는 동시대인 것이다.

정치·사회사적 배경 역시 개혁[왕당파] : 보수[반왕당파]건, 기독교 [안록산] : 신진[양국충]이건 그 반란의 빌미는 언제나 小我的 논리였음을 역사는 명증해 있다.

구조적 공통점으로서의 문답식 수사법은 두 작품의 문예미를 승화시켜 수용미학의 원천이 되었다 하겠다. 「問詞」 「答詞」 「結詞」, 굳이 「辭」라

33) 曹樹銘, 全上, “出師未捷·身先死 所以流千古英雄之淚也, 蓋不止爲諸葛悲之, 而千古英雄有才無命也. 皆 挿于此 言有盡 而意無窮也” 참조

기 보다 ‘詞’가 的宜할 듯한 3부악은 頌讚類 시가의 멋이자, 불가불 수용 미학적 장치임을 양주동은 진작 갈파했다. 「축상」의 기런 ‘어디 가 찾으 리오.’라는 문사와 ‘금관성 밖 뻑뻑한 잣나무 숲 속에 있죠.’라는 답사 역시 그 수사적 요량은 범상치 않다. 기파의 기상이 그렇듯, 공명의 기상을 받고 자란 잣나무이기에 ‘森森’임은 물론, 그러므로 ‘기파 = 공명 = 잣 나무’는 평면적 구조요, ‘푸른 풀’과 ‘노란 피꼬리’는 ‘무상[自·空]’의 시간 개념일 뿐이나, 무상할 수 없는 ‘천하 경영의 응지’와 ‘노신의 충 절’이 안타까워 ‘身先死’ ‘淚滿襟’이란 통곡을 미리 장치한 조형 구조이기에 천고의 명작으로 수용되어 왔다.

나아가 문면 밖에서 살펴본 두 작품의 사상적 기저 역시 판이할 듯, 전혀 동일하다. 유가의 奉儒守官을 평생의 신조로 살아온 두보야 이를 바 없이 “致君堯舜上 再使風俗淳”이란 三代日月, 곧 至治 지향이지만, 충담사 역시 「안민가」의 “君은 어비여 臣은 득스샬 어시여 민은 얼흔 아 히고--- 아으 君다히 신다히 민다이 흐늘든 나라악 太平흐니있다”와 같은 至治 指向의 정치철학으로, 「찬기파랑가」에서도 미래의 중생 제도주 미륵을 통한 이상경, 곧 지치주의를 구현하고자 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도식화하면,

구 분	찬기파랑가	축 상	비고
창작 연대	760 ~765	760	
창작 배경	정치사회적 혼란	안·사란에 의한 국란	
형 식	10구체	칠언율시	
구 성	문답식	문답식	
주 제	모현 의식	모현 의식	
사상적 배경	유가 및 미륵사상에 의한 지치 지향	유가적 지치지향	

와 같다. 그러므로 위 두 작품은 선지식인들의 우국충정이 낳은 현자에 대한 추모의 정과 함께, 재림에 의한 至治 지향적 송찬류의 노래문학이다. 따라서 ‘언어의 그물망’에 빠지기 보다 노래문학의 보편적 문법 및

그 심상 이해로 낫선 고전시가와의 친숙한 만남을 기대한다.

V. 문제의 정리

선지자인 시인의 사명은 조국이 평화로울 때는 ‘민족어의 완성’과 ‘민족 문화의 고양’을, 난세에 처하였을 때는 ‘혼란으로부터의 국민계도’ 및 “정의로운 민족혼의 일깨움”이라 전제하고, 그런 차원에서 신라 경덕왕 때의 난세와, 당대 안·사란을 ‘구제할 능력과 인망을 지닌 시대적 영웅을 추모하고 그리워함’을 주제로 한 충담사의 「찬기파랑가」와 두보의 「축상」의 창작 배경·구성법·주제·사상적 배경 등의 유사점을 통해 노래 문학의 보편적 심상을 바로 읽고자 했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1, 창작 연대의 동시대성 ;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의 8세기 중반은 대륙과 반도가 같은 정치·사회적 난세를 맞았고, 따라서 두 작품은 동시대에 창작되었다 할 수 있으며(760년대),

2, 창작 배경 ; 통삼 후의 안일과 사치가 부른 신라 경덕왕 대의 정치·사회적 혼란은 대륙의 지치·천보 연간의 태평·사치가 초래한 안·사란을 초래한 경우와 동일하며,

3, 작품의 구성 ; 「찬기파랑가」가 문·답·합창이란 3부의 거대한 코러스라면 — 물론 한시 작법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겠지만, 이 점은 분명 노래 문학으로서의 「찬기파랑가」가 「축상」보다 우수한 점이다. 「축상」은 결련의 비장미를 장치한 고도의 문답식 유사성을 수사법으로 썼으며,

4, 몇몇 난해 어구, 예컨대 ① 咽鳴爾處米, ② 浮去隱安支下, ③ 沙是八陵隱汀理也中, ④ 兒史是史藪邪, ⑤ 逸烏川理叱, 등의 어석 역시 용례도 없는 필요 이상의 추단은 자칫 ‘언어의 그물망[言筌]에 빠져 옛 시가 문학 바로 읽기에 극히 우려되는 바임을 전제하고, 양주동, 김완진, 이임수의 각론을 대비 놓고 후 노래문학의 보편심상을 필자의 견해로 제시

했다.

5, 주제 역시 난세를 구제할 능력과 인망을 지닌 시대적 영웅을 추모하고 그리워함이란 모현 의식으로 충담사는 기파를, —그는 충담을 위시한 시대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자연물[달]까지 숭배하는 미륵 같은 존재로 신격화 된, 두보는 천하구제[漢室의 재건] 및 선·후주[유비·유선]에 대한 충성과 民治에 전념했던 제갈량을 추모하고, 그들의 재림, 그러므로 요순의 순속한 이상세계의 건설을 바라는 願望, 혹은 그리움의 노래로 동일하며,

6, 사상적 배경 역시 동일 작가의 「안민가」야 이를 바 없이 유가의 현실 정치론으로 직서되었거니와, 「찬기파랑가」 역시 비록 불교의 미륵신앙에 바탕했으나, 미래의 이상 사회 지향이란 점에서 유가의 지치주의 정치논리와 다를 바 없는[不二法門] 일치점 등으로 요약되는 보편 심상의 노래 문학이라 결론했다.

<참고 문헌>

- 仇兆鰲(淸), 『杜詩詳注』, 중화민국 65. 文史哲出版社
 曹樹銘撰, 『杜臆增校』, 중화민국 60. 藝文印書館
 杜詩諺解, 『原本 韓國古典叢書·II』 1973, 大提閣
 崔南善編, 『三國遺事』 1946. 민중서관
 梁柱東, 『古歌研究』 1946. 박문서관
 梁柱東, 『麗謠箋注』 1955. 을유문화사
 梁柱東, 『國學研究論叢』 1962. 을유문화사
 李丙疇, 『韓國文學上的 杜詩研究』 1979. 이우출판사
 李丙疇, 『詩聖杜甫』 1982. 문현각
 李丙疇 編, 『杜詩研究論叢』 1982. 이우출판사
 林基中,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1981. 이우출판사
 林基中, 『한국문학의 이삭』 1998. 아세아문화사

- 林基中, 『고전시가의 실증적 연구』 1992, 동국대학교 출판부
林基中 外, 『새로 읽는 향가문학』 1998, 아세아문화사
崔鶴璇, 『鄉歌研究』 1985, 도서출판 宇宙
김완진, 『향가해독법 연구』 1981, 서울대 출판부,
洪起三, 『향가설화문학』 1997, 민음사
金雲學, 『신라 불교문학연구』 1970, 현암사
최 철外, 『韓國古典詩歌史』 1997, 집문당
최 철, 『鄉歌의 본질과 시적 상상력』 1983, 새문사
양희철, 『삼국유사 향가연구』 1997, 태학사
黃浪江외, 『鄉歌麗謠研究』 1985, 二友出版社,
金甲起, 『韓國漢詩文學史論』 1998, 이화문화출판사.
金甲起, 『낮선 고전시가 찾아 읽기』 2003, 이화문화출판사
金俊榮, 『韓國古典文學史』 1977, 螢雪出版社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1976, 신구문화사
우리어문학회, 『한국문학사·국문학개론』합본 1949, 일성당서집
국어국문학회편, 국어국문학총서·1 『신라가요연구』 1979, 정음사
조동일, 『한국문학통사·I』 1982, 지식산업사
조동일 외, 『한국문학연구입문』 1982, 지식산업사
홍신선저, 『한국시와 불교적 상상력』 2004, 도서출판역락
김명희, 『옛문학의 비평적 시각』 1997, 태학사
김갑기, 「원왕생가」 『새로 읽는 향가문학』 1998, 아세아문화사
이임수, 「찬기파랑가」 『새로 읽는 향가문학』 1998, 아세아문화사
로버트 c 홀립저, 최상규역, 『수용이론』 1985, 삼지사
J.R. 크루저저. 권중준역, 『시의 要素』 1983, 학문사
이창식, 「모죽지랑가」 『새로 읽는 향가문학』 1998, 아세아문화사
오현경편, 『한국의 명시』 1991, 도서출판 대우,

Abstract

'Yearning' Motif for Super Heroes / Kim, Kap-Kee

This study explores 'yearning' motif for super heroes in the two ancient poems: Master *Chung-Dam's* "A Hymn for *Jiva*" and *Du-Fu's* "The Premier of *Chok (Zhuge Liang)*." These two poems, that exalt heroic deeds and, at the same time, yearn for the diseased heroes,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political and social milieus of the time. Master *Chung-Dam's* "A Hymn for *Jiva*" is the product of severe political and social unrest in the end of Korean *Shilla Dynasty* and *Du-Fu's* "The Premier of *Chok (Zhuge Liang)*" is that of the civil war (*An · Sa's Rebellion*) in Chinese *T'ang Dynasty*.

Both poems show strikingly similar characteristics in theme, atmosphere, structure, style, and motivation. Also the 'yearning' motif in the two poems is very similar to the traditional *ubi sunt* motif in the Western literature. However, unlike the *ubi sunt* motif that deals with the transience of life, youth, beauty, and human endeavor, the 'yearning' motif in both poems does not grimly or sorrowfully urge their readers to prepare spiritually for the afterlife. In an epic eloquence and a patriotic strain both poems exhort rulers and people to order and discipline by recalling them ancient great heroes who had brought glory and peace to their countries. The 'yearning' motif in both poems is not for the afterlife but for the present.